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News Letter

중국, 최초 해외기지 지부티에 부대 파견

중국 국방부는 “해군중장 선진룡(Shen Jinlong)이 지휘하는 중국군대가 광둥성 장지양(Zhangjiang) 해군기지에서 발대식을 가지고, 지부티로 출발하였다.”라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지난 화요일 신화사 통신이 보도하였다.

중국은 지부티 군수 센터가 아프리카와 서 아시아에서 해적 퇴치, UN평화유지활동 및 인도주의적 구조 임무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 기지는 중국 해군과 타군이 중국의 성장하는 경제 및 정치적 입지에 걸맞는 국제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군사작전과 합동연습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지부티는 작지만 전략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 이미 아프리카에서의 미군 작전센터인 레모니어(Lemonnier)기지가 있고, 프랑스, 영국 및 일본 군도 주둔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도 걸프지역 아덴만에서 다국적 해적 대응 초계에 참여하였고, 지중해에 해군을 파견할 준비를 한 가운데, 2011년에는 첨단 전투함정과 군 수송기를 보내 약 35,000여명의 중국 시민을 리비아로부터 후송하였다.

2015년에는 전투가 벌어진 예멘에서 중국시민과 외국인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세 척의 함정을 파견하여 해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 Defense Naval News(2017.7.14)

인도, 중국의 세력 확장 우려

중국이 영향력 범위를 세계로 확대하기 위한 최근의 나타나는 의도는 인도를 우려하게 만들고 있으며 인도 방위분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지부티는 중동과 아프리카에 인접함으로서 군사 강대국들이 그곳에 기지를 확보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지부티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를 포함한 소위 중국의 “진주목걸이”의 일부로서 잠재적으로 인도를 포위할 수 있는 지역이 된다.

둘째, 지난 2개월 동안 인도해군은 인도양에서 잠수함, 구축함, 첩보수집함 등을 포함하여 10여척의 중국 군함을 목격하였다. 이는 인도-중국-부탄의 국경이 맞닿는 곳에서 중국과 인도 양측 군대가 3주 동안 대치하였던 양상으로 여겨진다.

셋째, 1992년부터 연례적으로 미국, 인도, 일본이 연합으로 말라바(Marabar) 군사연습을 계속 발전시킴에 따라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중국은 그 전략지역에 군사기지를 설치하였다.

넷째, 인도양의 해양수송로는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해양을 통한 세계 교역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40%, 말라카 해협으로 35%, باب엘만다브 해협으로 8% 등 80% 이상이 인도양 해역을 통과한다. 인도는 세계 4번째 경제 대국이고 70% 이상의 원유수입이 이 해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부티 중국 군사기지는 인도양 해상수송로에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

다섯째, 중국은 수세적 군사정책에서 벗어나서 공세적으로 군사력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여섯째, 지부티 기지는 중국의 발전 전략인 일대일로*의 일환이고, 인도의 캐시미르 지역을 통과하여 중국과 파키스탄이 경제회랑(CPEC)을 구축하겠다는 것도 인도의 영토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 주 : 이로 인하여 인도는 중국이 주도하는 “一帶一路”회의에 가입하지 않음

*** 일대일로(一帶一路, OBOR : One Belt and One Road) : 一帶는 옛 실크로드를 연한 국가들과 제휴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一路는 해양 진출을 통하여 중국의 발전 전략을 펼치자는 것**

* Defense-Naval News(2017.7.14)